이상익 함평군수, 노인대학 특강 '눈길'

어르신과 소통…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최선"

이상익 함평군수가 어르신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직접 함평노인대학 특강에 나섰다.

함평군은 2일 "이상익 함평군수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초청 특강을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강에는 함평노인대학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함평군의 노인복지 정책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군수는 "노인대학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가 운영하는 함평노인대학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3회 화요일에 진행되며 ▲실버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치매예방 및 건강체조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돼 어르신들의 배움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함평=지대만 기자

장성으로 '4~5월 쏠쏠한 여행' 떠나볼까?

'2025 장성 방문의 해' 관광프로젝트 본격화

전남체전·락페스티벌·축제…혜택 이벤트 풍성

장성군이 '10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알차게 준비한 '2025 장성 방문의 해' 관광프로젝트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성군은 4~5월 두 달간 장성 전역에서 전남체전, 락페스티벌, 축제, 각종 이벤트가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2일 밝혔다.

전남체전(4월 18~21일)을 시작으로 성장장성 락페스티벌(4월 19일), 전남장애인체전(4월 30일~5월 2일), 길동무 꽃길축제(5월 10~11일)가 이어진다.

가장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콘텐츠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다.

먼저 '4~5월 장성 방문의 달' 기간에 장성 지역 음식점, 커피숍,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인증사진을 남겨야 한다.

이어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 후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을 방문해 리뷰 화면을 보여주면 2만~7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자가용 없이 장성 여행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반값 관광택시'도 운영한다. 3시간, 5시간, 8시간 코스로 구성된 택시는 이용 요금의 50%를 장성군이 부담한다.

축령산 편백숲 등산객들이 코스를 완주한 후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료 이동수단 '명품숲 투어 어게인'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모든 콘텐츠는 장성을 찾은 방문객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예약 진행은 '장성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4~5월에는 양대 체전과 락 페스티벌, 길동무 꽃길축제를 비롯해 진원면 산동리 유채꽃축제, 북하면 산나물축제, 황룡강 뱃나드리축제도 풍성하게 열 계획"이라며 "쏠쏠한 재미와 혜택이 가득한 장성군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장흥군청 공직자, 산불 피해 주민 성금 1666만원 기부

김성 장흥군수와 장흥군청 직원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1,666만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호 성금은 이번 산불로 피해가 큰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의 사회복지 모금계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장흥군은 지난 3월 31일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 무산김 등 1차 구호물품을 기탁했다.

군청 공직자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장흥군청 공직자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화순,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화순군은 '2025년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군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소집된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은 부군수(이호범)를 단장으로 총 4개 반 8명으로 편성·운영에 돌입했다. 토지 보상 및 각종 행정절차 신속 이행 등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상시 가동한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수해생활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등 5개 분야로 추진되며, 25년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호범 단장(부군수)은 "재해예방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사업인 만큼 조기 발주 및 예산 투입으로 안전한 화순, 재난 없는 화순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며, "조기 발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힐링 관광여행 '영광 쉼 투어 버스' 운행

광주 유스퀘어·송정역서 오는 19일 출발

영광군은 역사·문화·자연 명소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으로 '영광 쉼 투어'를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쉼 투어는 올해부터 기존 인기코스에 테마식물원, 물멍쉼터, 향교를 추가해 3개 코스로 확대해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영광 쉼 투어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바다랑(A)·숲이랑(B)·문화랑(C)을 순차적으로 운행하며 광주 유스퀘어(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9시 30분, 광주 송정역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10시에 출발한다.

▲바다랑(A)은 테마식물원, 숲쟁이꽃동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를 ▲숲이랑(B)은 불갑사, 테마공원, 물멍쉼터, 숲쟁이꽃동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물무산행복숲 황톳길을 운행하고, 이번에 추가된 ▲문화랑(C)은 숲쟁이공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매간당 고택, 물무산행복숲과 향교를 둘러보는 영광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이다.

천년을 품은 영광에서 자연과 함께 잠시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풍경을 돌아보면서, 점심으로 제공되는 굴비 한정식으로 영광의 맛도 느껴볼 수 있다.

1인 이용요금은 버스 탑승료·중식·간식비 포함 30,000원이며, 만 5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이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나라고속관광(062-672-9090)에 전화 예약을 하거나 영광군 누리집(문화관광/영광 쉼休,투어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고, 1인이 대표로 여러 명 예약도 가능하다. 예약은 투어 전날 17시에 마감된다.

/영광=서종민 기자

남도관광 1번지 담양서 '추월산 벚꽃축제' 5~6일 개최

벚꽃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체험 행사 마련

담양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가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담양군 용면 추월산 벚꽃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0번째인 이번 축제는 용면청년회가 주최·주관해 추월산의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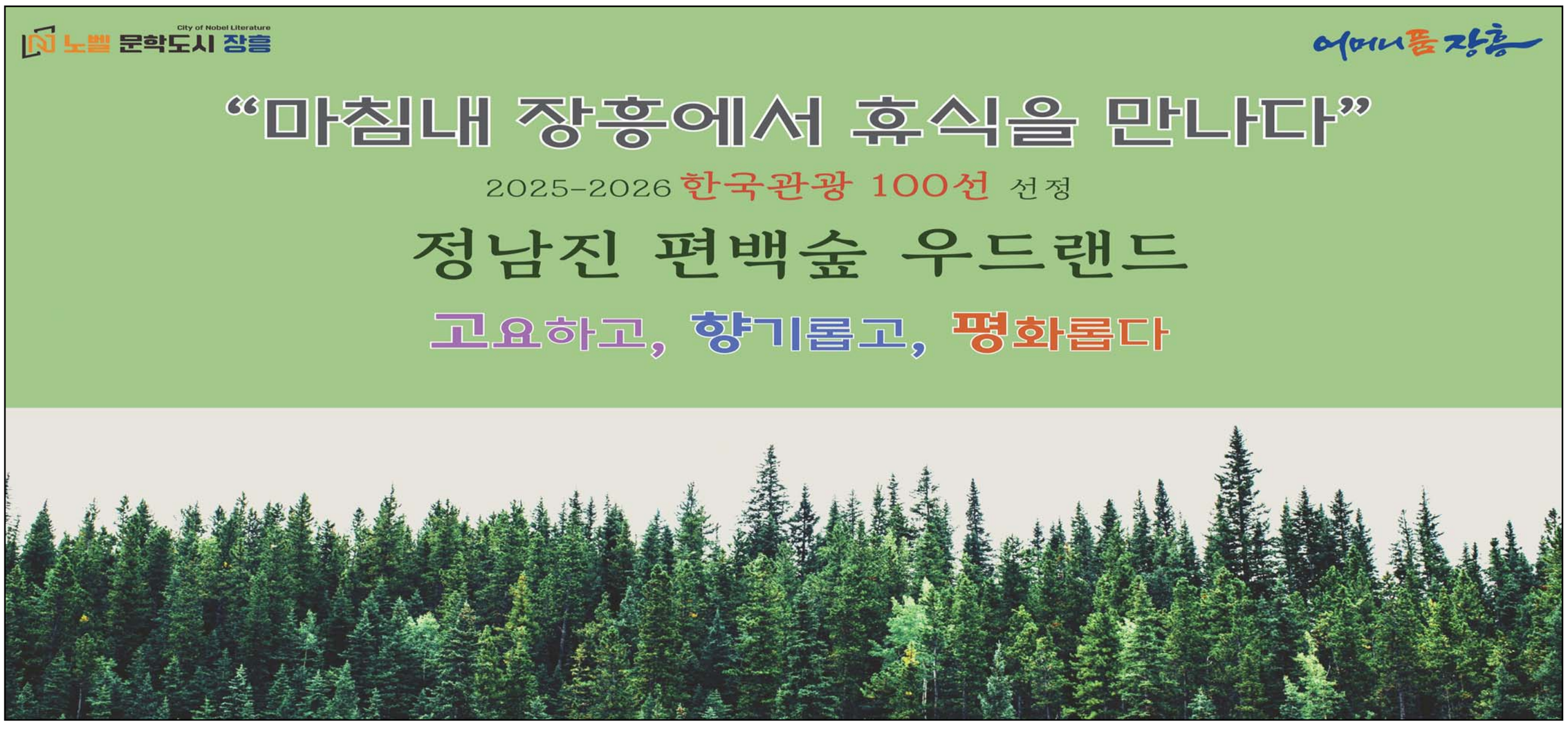
난타 공연과 버블쇼, 부채 만들기 체험·판매, 용마루길 보물 찾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 지역 특산물인 용면 딸기와 잼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5일 오후 2시 개막식에서는 봉산와우농악보존회의 길놀이공연을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미스김과 송유나의 초청공연, 주민 노래자랑, 담양연예인협회의 특별 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최고령 장수상, 장수 부부상, 4대 거주 화목상, 다문화 모범상 등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심갑철 용면청년회장은 2일 "담양호를 품은 추월산 벚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기대된다"며 "자연 속에서 벚꽃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